

韓基連豫算問題波紋

要請に隸屬云々

한국기독교 연합회에서
지난삼일 광복교회에서 실행
전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전에 볼 수 없던 긴장된 분위기
가 엮인것은 명년도 예산변
동을 협의하는 회합이었기때
문이다. 즉 한국기독교연합회
는 지난九月五日 一萬五千
명의 명년도 예산안을 미국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것을

안재필의안을 제출하였다
경제적인 사업관계나 정치
적인 사업관계에 있어서의
금전으로 주종관계가 성립되
수 있으나 종교적 사업관계에
서는 금전으로써 주종관계가

(主從關係)있을수없는것이다
한기련이 직원의봉급까지를

발을 뻗었다	불유패한	주종관계적인	사
회회의	발생하는	것은	유합회운영
자립적	한	국교회가	연합이다
개인의	구체적인	노력을	하야
로 하였다	안을	세우기	

以北爲禁食祈禱

한글치박사를 회장으로
신 이복선도 대표자 임시추
회는 지난 四月五日
회에서 회장 사회 아래

기쁜종아 울려라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하는 까지 퍼지게
이발에 크게 울려라
저쪽은 해 가는데
제들도 건너내려고
힘쓰는 자를 맞아서
주나라 속히 이루어
기쁜종을 울리자

회되어 죄에 결의를 하였
다 한다
一 유엔총회 유엔헌장 유엔
군총사령부 주한미대사관 유
엔감찰위원회 미국정부 미국
남북정상회담 우애 각단체
에 한국원조에 대한 감사전문
을 발송되기로 국내 군정
관 기관에 감사예방지로
一 남한 각지 전파남원위원단
을 조직하고 이달말경 부터十

祈禱 以北信徒會의 誠心

서기	이홍화	협동총무	방화일	이인식	부회장	이한수	총무	이원찬	회장	한경직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聖誕에 傷痍軍慰問
戰時下

基督者の使命

부산중앙교회에서는 일신
장법에게 교인들의 적성인 위
문물을 보내였던바 사단잡민위
오덕준 준장으로 부러 교회
목사에게 감격에 넘친글씨를
어느곳에나 소개하다 화
실히 잔중에서의 느낌을 더
옥간철학을 갖게 하는것이
옳다 이 자리에 군무에들
타서 모인 장법들인만큼
가을 하들과 같은 신양심을
가진 때인가 들리는 총소리
은은히 들리는 총소리 속에
서 진중 예배도 오를 로서
제이일을 맞이 하였읍니다
속에서 새날을 향하여
그런가 할 말을 배설하여
있읍니다 주일이면 초동하

偉大は實血の功勞

巨濟島捕虜傳道記(一) 崔載率

별서부터 저들에게 부음전
노하는것을 사명으로 알고 수
고하던 한병혁 우두발 두목
하사여의 처자 간절한요청에 의
대할을 맡내 거제도까지 감
노하여 부총회를 인도 하던
별서 수심년전 일이며
용기가 나지않아서 그다
지속히 응 차못하였던것이다
이것이 환영의 전도하는것은
상대로 전도하시는데 육
김건호목사의四五인의
자들을 만났기 때 나는것도
원래 출입을 임의로 못하는
곳인지라 四、五처가량의 허
를일에서 수많은공포로들
상대하게되였다 의외에도
안심출연케된것은 첫째로 그
들이 복음을 알만는 목적이었
다 사상 환영 잘받는 사람이
모두 부동한 그들을 향하여
웨치는소리가 허공을치는것처럼
목석울타리는것처럼 길가
나이지는새처럼 도로옆으로
어릴수가하면 열려 열개편
해지고 도리어 꽃을 열게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를 듣고는 관화가 도리어 앞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영국양면으로 자유평화화살
에 공주된 그들은 뒤를기우
리고 무엇울 얻어보겠다요달
러드느것이 마쳐 예자에 뭇
자사 많은 양잘라니 말습하시
던것울 연상케 하는것이였다
한편 가련도하고 또 복음전
할종피도 다겨질다 심상한
방법으로 하다가 좀더 초래
할것울 깨닫고 좀더 깊은애
로 그들울 던지지않으면 아
니 되리라하여 주님앞에 겸

복음의 감을 들고 마진을
거피하고 구국 천국 운동을 전
개하라는 것이 그 형세에 발
하지 않은가 하였다 여하는 만
병접전이다 절박속에 가두어 놓
고 때려부시는 데야 한산도의
왜적처럼 손을 아니를 잡사
가 미련이라 참으로 기적적
인 기이한 아니 할 수 없다 어
제의 공산군이 오늘 예수군이
되어 가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다

머	이에 관한 해의	모든 나라
작품의 수입배급과	국내 제작	
에 활동한 것이 다	한기련	
이와같은 회가 전	의원회를	
산하에서 음악영화	전국전	
발족한바도 있거나	많은	
도에 더욱 기대되는바		
데 이사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변홍규 부 회장 서성수		
조경우 총무 유호준 박영		
정명원 이사 홍철일 김창근		
출 김치목 마경일 김창근		
박동선 김형도 김우중 김		
선 방영창 문선호 정달빈		

도가 전개 되어야 된단
 다 전교회는 이들을 위하
 수 있도 없읍니다 전선 후방
 국도 마시지 못하고 차디찬
 이상되는 높은산에서 따뜻한
 이 밭이 고장별을 온 천애를
 무심한 처위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 할것입니다 닥쳐 오는 무서
 이야 말로 이곳에 형용 못
 있었읍니다 전선 장병의 고향
 고 있는 장병들에게 보내주
 으셨읍니다 전선 장병의 고백
 이기에 형용 못

기쁜소식

누가二〇八十三

평화를 앓고 날마다 험한
먼
떨고
무서워
할일이
아

한글을
대충 알
고서 한글
말하기를

리는
기뻐 평화의을
마지하자

맛도록 함으로써 원곡을

자모의 이름

傳道教化에
音映活動

敎界各層에 協讚要請

복음을 주의 명하신바 오늘날까지 여왕으로 《大明創製》 고있다	떨까하지 말씀을 문명적인 배방으로 한편 한국인은 교화사업도 곤란이 오늘날같이 이모다가 성사롭지못 한데	전하라는 한국 전하 이 이용하 자기 하엿 오늘날같이 성사롭지못 한데	이 기독교인 다 중에서 영화 전 있던 바
한편	당면하고 《오》 한편	《오》 한편	한편
금법에	적극적인	전도회는	활동을하기

라니 좋여 있음니다. 훌륭한
지는 못하나 오류강도 준비
되 있음니다. 백드도 참여하
고 있었으며 시도의소직
이란 주보가 발간 되어 시
앙 장병의 신앙교백을 다체
롭게 실리어 있습니다. 주과
목사는 활해도 출신 손두환
씨입니다. 포성과 종소기장
교회와 찬양의 노래소리
배교회의 기둥이 이땅에서
되고 있다는 감을 주께하



페허에서 거처를 찾아 방황하는 서울市民

[illegible]

기쁜 소식

누가二〇八—十三

평화를 옳고 날마다 평한
생활속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없
지 않으리만 하려는 야심도 없
이 광야에서 양과 함께 살
던 목자들의 이 야기에 귀를
기우려로자

저들은 두방학사와 같은 학
식자도 아니었고 해운왕같은
권위도 없었고 회랑과 거리
에서 경례를 받는양반도 아
니었다 그러나 온화나 진리
의 하나 남의 사람은 그들에
게 나타나면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배우자

八절 『그지경』이라는 것은
편집없는 인간들과 같은
에 누인 가기에 주는 입을
피집없는 인간들과 같은 처지

먼 열고 무서워 할 일이 아
니라 택함을 받은 주님만이 크
은 백성에게 즉 전인류가 너
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 너히
예비 전하노라 공포는 물리
치고 희망을 갖으라

十一절 기뻐할 소식은 무
엇인가 하면 따위의 동리(사
상十七장十二절)에 고생하는
너희 인간들을 위하여 구주
가 나섰다는 말이다 그곳
기는 주 그리스도시니라
十二절 강요도 외쳐 구유
에 누인 가기에 주는 입을
피집없는 인간들과 같은 처지

[illegible]

한글마춤법통일안

는 수밖에서 없었던 것이다. 유대 지방에서 양을 벌판에 기르
는 것은 봄 여름 가을이 지만
희생의 제물로 기르는 양은
어느 때라도 들밖에 기르
고나니 이양도 그러한 양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九절 주의 사자 라 함은
천사인데 벌서 세번에 다 타
났다. 여기는 그 천사의 일흔
이 있다. 전하는 말로 보아서
가부리엘 인가 십다 주의 영
과 이 빛이 었다. 함은 하나
남겨서 함께 계시다는 중기
의 빛이 었다. 고난이다. (요후 3)
一八절 목자들이 무시워
하였다는 것은 공포라 기보다 경
의심의 표현() 누가 일장 一二절
三〇절 이었던 것이라 하겠다
十절 보라 는 말을 음으로 보
필요를

해방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홀로한 한글과 우리말을
지 못하였으나 이제 우리로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대
한 애착심을 가진 사람은
지 없이 이로 인하여 온가
희생을 당하여 죽음까지
은화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해방후 우리에게가
장 반갑게 찾아온 것은 못우
리의 생명인 한글이며 우리
말이 었다. 본국에서는 한글
용법이 국회를 통하여 모
든 문서가 한글로만 쓰기로
있사오며 학교교과서 한글
모습화가 일일히 활동하고
오늘에 말년에 재유하는
우리 六十萬 동포도 한글
일한을 열심으로 바르게
필요를 느끼어 한글학회에

세 한글	사 제정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계속하려고 한다	한글학회가	一九三三年十月十九日	임시총회를	마감으로
三七년	일백이십오회	소요	시간수	사백삼십삼시간
가장	엄정한태도와	가장신중	한 처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이 통일안을	세상에	대어 놓았다	그후 우리말에
대한	무한한탄압과	시대의변	천에도 불구하고	한글마춤법
통일안을	옹지가지	안는 기	초를 취하고있다	이는 곧
우리 한글의	지위는	둘도없	는 새문자의	금자립 이다
차	태			
총론				

제七장	제六장	제五章	제四章	○人日口己丁	己丁	己丁	己丁	己丁	己丁
뛰어쓰기	와타이 표기	약어	한자어(漢字語)	원사와 접두사	품사 합성	바침 표시	변격 용언	구적 용언	구적 용언
			다소리만을 변기할것						
			다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변기할것						
			속음						

성령요리문답
 총화 치리국 제공
 머리말 신양생활을 시작
 하는날부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히 부딪친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 할것인가
 하는문제가 근근문제의 하나
 이다 성경을 바로 아는것이
 모든 문제의 청령이기 때문
 이다 옛사람들도 이 성경을
 바로 알기위하여 많은 시간
 을 드려 성경요리문답을 지
 은것이다 금후 이자면을 통
 하여 여러분의 편의를 도으
 리하는것이다

문 사람의 제일의는 목적의
 달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이요 영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
 시게 하는것이니라
 一. 믿음 三〇一六
 二. 사랑 四〇七
 三. 기쁨 四〇七
 四. 화평 四〇七
 五. 인내 四〇七
 六. 친절 四〇七
 七. 선함 四〇七
 八. 신실 四〇七
 九. 절제 四〇七
 十. 온전함 四〇七
 十一. 기쁨 四〇七
 十二. 화평 四〇七
 十三. 인내 四〇七
 十四. 친절 四〇七
 十五. 선함 四〇七
 十六. 신실 四〇七
 十七. 절제 四〇七
 十八. 온전함 四〇七
 十九. 기쁨 四〇七
 二十. 화평 四〇七
 二十一. 인내 四〇七
 二十二. 친절 四〇七
 二十三. 선함 四〇七
 二十四. 신실 四〇七
 二十五. 절제 四〇七
 二十六. 온전함 四〇七
 二十七. 기쁨 四〇七
 二十八. 화평 四〇七
 二十九. 인내 四〇七
 三十. 친절 四〇七
 三十一. 선함 四〇七
 三十二. 신실 四〇七
 三十三. 절제 四〇七
 三十四. 온전함 四〇七
 三十五. 기쁨 四〇七
 三十六. 화평 四〇七
 三十七. 인내 四〇七
 三十八. 친절 四〇七
 三十九. 선함 四〇七
 四十. 신실 四〇七
 四十一. 절제 四〇七
 四十二. 온전함 四〇七
 四十三. 기쁨 四〇七
 四十四. 화평 四〇七
 四十五. 인내 四〇七
 四十六. 친절 四〇七
 四十七. 선함 四〇七
 四十八. 신실 四〇七
 四十九. 절제 四〇七
 五十. 온전함 四〇七
 五十一. 기쁨 四〇七
 五十二. 화평 四〇七
 五十三. 인내 四〇七
 五十四. 친절 四〇七
 五十五. 선함 四〇七
 五十六. 신실 四〇七
 五十七. 절제 四〇七
 五十八. 온전함 四〇七
 五十九. 기쁨 四〇七
 六十. 화평 四〇七
 六十一. 인내 四〇七
 六十二. 친절 四〇七
 六十三. 선함 四〇七
 六十四. 신실 四〇七
 六十五. 절제 四〇七
 六十六. 온전함 四〇七
 六十七. 기쁨 四〇七
 六十八. 화평 四〇七
 六十九. 인내 四〇七
 七十. 친절 四〇七
 七十一. 선함 四〇七
 七十二. 신실 四〇七
 七十三. 절제 四〇七
 七十四. 온전함 四〇七
 七十五. 기쁨 四〇七
 七十六. 화평 四〇七
 七十七. 인내 四〇七
 七十八. 친절 四〇七
 七十九. 선함 四〇七
 八十. 신실 四〇七
 八十一. 절제 四〇七
 八十二. 온전함 四〇七
 八十三. 기쁨 四〇七
 八十四. 화평 四〇七
 八十五. 인내 四〇七
 八十六. 친절 四〇七
 八十七. 선함 四〇七
 八十八. 신실 四〇七
 八十九. 절제 四〇七
 九十. 온전함 四〇七
 九十一. 기쁨 四〇七
 九十二. 화평 四〇七
 九十三. 인내 四〇七
 九十四. 친절 四〇七
 九十五. 선함 四〇七
 九十六. 신실 四〇七
 九十七. 절제 四〇七
 九十八. 온전함 四〇七
 九十九. 기쁨 四〇七
 一百. 화평 四〇七

성경에 있나니 이책 밖 에는 자기들 영혼을게 하 고 자기들 기쁘시게 할 것을 가르친 규속이 없 나니라	一, 卷三〇十六 卷四〇七, 四十四 卷三〇十五, 十六 二, 卷十六〇三十一 卷十五〇三十一 三, 卷一〇三十四	은, 성경이 무엇을 요긴히 가라치나요 성경이 요긴히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 행할 본론이 아니라
一, 요五〇卅九 卅〇卅一 요일一〇三四 二, 卷十五〇四 요전十〇十一 四,	은, 하나님은 무엇이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것과 지혜와 권능과 거 특하심과 공의와 인자하 심과 참되심이 무한하시 며 무궁하시고 변치아니 하시나니라	一, 요四〇二十四 二, 卷三〇十四 三, 卷十一〇三十三 四, 卷十七〇一 五, 卷四〇八 六, 卷三十四〇六七(개속

[illegible]

殉教史話

사랑의原子彈

안용준

二十日 아침후에 모다들하
교로 갔는데 어찌된 셈인
지 동인군이 일주이 도라
왔단다. 웬일이냐고 무로
순천역에 표회소집 한
전송하러 갔었는데 여
울라오는 기차에 손
있고 군인이 타고와
어떻게 된셈인지 모르
나 경매와 전판과 무슨
사람들이 이러단듯이 총집을
하러가며 싸움을 하는데 사람
들이 이러물리고 저리물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
인군이 하는말이 「참 세
간에말하고 하더라고
그러자 얼마후에 다
들온도라왔으나 동
인이가 안오고 대단히
상심이

종에 해산당하면서 인제야오
다오 으면서 생각하니 암
해도 이것은 정의대 불의의
싸움이니 신자대 불신자의싸
울것이며 우리는 잘싸워야
했다고 제천구 제민군에게도
말을 하였다고 함대다. 그랬
서 온치구들은 한때 모였
나 다름짓 사람들은 모다인
메론지 피난을 가기로 우리
도 가자고 양친부가 말하
동인이 말이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읍니다」 하면서
나를 천치않았읍나」 하는
선생의 눈에는 그 무순 이
상스러운것을 느끼는것 같
는것이었다. 흥선생은 또한
그다음날 二十日 새벽에

[illegible]

사랑의 原子彈 (八)

史殉
話教

彈

断伝仁ノナリ

入門 書 聖

新章
テネ
省
吾
新章

山谷
の
本
質
・
構
造
を
詳
細
形
易
に

山
谷
の
本
質
・
構
造
を
詳
細
形
易
に

200円

日本芸術院会員

和田三造

傑作聖画集

上製本一五〇円

普及版 八〇円

★お申込みは、一頁在席

あるハガキに、直接送行所へ！

東京都新宿区小宮町松富頭三三

文化建設社

（振替貸金九八二八番）

●B5横判・四八頁

●高級原色美術印刷

●ビニールびき豪華本

新約 聖書 辞典
 山谷 省吾 アデネ文庫
 新約中の重要事項・難解字句等
 を箇所解説した 30冊 送8
 東京神田駿河台・版橋東 53909

山本 新造 N. H. 推薦 日本國書館協會選定圖書

暴力・平和・革命

キリスト教と社会主義の関與を論ずるニーバーの社会愛革命を相対して、暴力革命か平和革命かという現下喫緊の問題を論究

一八〇円 送料25

バルトとニーバーの論争

有隣堂出版・岡部正純訳

アテネ文庫

三〇四 装幀

仙台傳道所
佐賀傳道所

珠聖經全書(五) 價二五〇圓

實珠新約全書(五) 價八〇圓

簡易國漢文新約全書(五) 價八〇圓

新約全書付詩篇(五) 價八〇圓

新約全書付詩篇(五) 價八〇圓

新約全書付詩篇(五) 價八〇圓

新約全書(五) 價四〇圓

懷中 新約全書付詩篇 價皮衣一六〇圓
布衣七〇圓

東京都銀座四の二聖書館內

大韓聖書公會

韓國 青年運動의 展望

이 환신



어디는 말이지? 그렇지도 않지 않음이다. 그러나 장래를 위하여 산다는 생각보다는, 그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그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그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그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個人力量과 組織力

장 이욱

우리 한국사람은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第五장 上 座講

민주주의의

피시어 박사 (十)

여기에 있어, 상정이라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소위 '가정'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어, 상정이라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소위 '가정'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어, 상정이라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소위 '가정'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戰禍に憐む韓國の人々に 愛と救済の手を伸べよう 韓國難民救済運動趣意

朝鮮半島に於ける難民の数は、二億に達するに至りました。平均年齢十六歳という若年の難民が、戦禍に巻き込まれて、飢餓と寒さに苦しんでいます。彼らは、救済の手を求め、愛の手を求め、救済の手を求め、愛の手を求め、救済の手を求め、愛の手を求め...

救済運動要綱

- 一、救済運動の中心は、難民の救済である。
- 二、救済運動の目的は、難民の生活の向上と、その将来の希望である。
- 三、救済運動の方法は、物資の供給と、教育の普及である。
- 四、救済運動の組織は、難民救済委員会である。
- 五、救済運動の活動は、全国的に行われる。

충성환, 하신연 새해 첫 아침



韓國最初の女牧師
大邱長神學生近況
傳道에 總動員